

#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육아종합 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이윤진 연구위원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과 사업내용, 지역별 설치 분포를 살펴보고, 두 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일본의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를 사례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원칙적으로 연계한다. 둘째, 신규로 설치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리적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가까이 설치한다. 셋째, 신규 센터들은 규모는 작더라도 기능을 분화하여 읍·면·동에 설치한다. 예컨대, 어린이집 지원중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 지원 중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전자는 시·군·구에 설치하고, 후자는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이다. 가정 양육지원 서비스는 지역밀착형으로 제공되어야 수요자의 만족도와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시작은 근방의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제휴에서 출발한다.

## 1. 들어가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육아는 어느 한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육아지원기관에 의존하여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과제가 아님을 잘 대변해 주는 명언이다. 전통사회에서 육

아를 위해 부모뿐 아니라 형제, 친인척, 더 나아가 마을의 이웃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육아는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오늘날 핵가족화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기란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다. 주양육자인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외벌이 가정도 육아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sup>1)</sup>

\*본고는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로 수행한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 연구」(이윤진·조혜주)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정리·보완한 것임.

1) 일례로 육아정책연구소의 도남희·이정원·김문정(2012)이 수행한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정책과제」연구에서 기업 근로자의 72.9%가 자녀양육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번인별로는 남성과 여성 각각 69.6%, 76.3%가, 외벌이 가정과 맞벌이 가정 각각 66.1%, 76.9%가 자녀양육이 어렵다고 응답함(pp.71-72).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남녀, 맞벌이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정부는 육아의 장소를 개별 가정이나 어린이 집·유치원에서 지역사회 전체로, 육아의 주체를 부모(또는 대리양육자)에서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꼽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구, 보육정보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지역규모별(중앙, 시도, 시·군·구)로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의 어린이집 지원기능에서 가정양육지원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가족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등<sup>2)</sup> 2014년을 기점으로 두 센터는 가족양육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다. 보육분야의 국고지원은 2004년 4,000억 원에서 2014년 5조 2,700억 원으로,<sup>3)</sup> 유아교육 예산은 2004년 4,454억 원에서 2014년 5조 3,042억 원으로<sup>4)</sup>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비용지원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 수 확충에도 노력하였다. 어린이집은 2004년 26,903개에서 2014년 43,742개로 유치원은 같은 기간 동안 8,246개에서 2014년 8,826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1(2014년 기준)<sup>5)</sup>로 OECD 국가 224개국 중 219위로 최하위권이다. 저출산 문제는 비용지원이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증설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렇다고 이

러한 정책들이 효과가 없으므로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육아정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될 때, 저출산 문제는 점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의 증설, 누리과정이나 양육수당과 같은 비용지원정책, 아이돌보미 정책들이 정책 수요자인 부모(가정)에게 각각의 별개 서비스가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One-Stop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을 때 육아지원정책의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기능은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 본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과 사업내용, 전국 설치 분포 등의 현황을 고찰하고, 일본의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의 사례분석을 통해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현황

###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 1) 목적 및 사업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2) 여성가족부(2014). 2014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안내. p.34.

3)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p.84.

4) 서문희·이혜민(2014). 같은 책, p.90.

5)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검색일: 2015년 8월 14일)

근거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목적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의 지역 내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에 있다.<sup>6)</sup>

2014년 사업목적에 가정양육지원이 추가되면서 주요 사업내용은 1) 어린이집 지원, 2) 가정양육지원 3) 정부기타사업으로 구분된다. 가정

양육 지원서비스로는 일시보육 서비스,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보호자 상담 등의 사업이 있다(보건복지부, 2015: 369)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는 영유아 부모상담, 부모교육, 장난감·도서 대여, 학대예방교육 및 상담, 영유아 부모에 대한 건강·영양·안전 교육이 공통사업이며, 지역특색이나 센터 여건에 따라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표 1 참조).

## 2) 설치 현황

2015년 9월 기준으로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표 1〉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구분	공통사업	자체사업
어린이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보육과정 교육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li> <li>어린이집 설치운영·이용 등에 관한 상담</li> <li>어린이집 보육컨설팅(설치운영, 평가인증, 보육과정, 재무회계)</li> <li>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li> <li>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보수교육 실시의 위탁)</li> <li>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 등</li> <li>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영양·안전 교육</li> <li>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li> <li>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li> <li>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대한 교육</li> <li>열린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li> <li>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원</li> <li>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ul>
가정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에 대한 상담</li> <li>부모에 대한 교육</li> <li>양육관련 프로그램·도서·장난감 등의 제공 또는 대여</li> <li>영유아 부모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 등</li> <li>영유아 부모에 대한 건강·영양·안전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양육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li> <li>일시보육 서비스 제공</li> <li>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제공</li> <li>부모소모임 등 육아정보 교류 공간 제공</li> <li>그밖에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ul>
정보기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li> <li>보육프로그램 및 육아 콘텐츠 등 제공</li> <li>보육도서관(on/off line)운영</li> <li>보육정보지, 자료집 발굴 등 보육관련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관련 상담</li> <li>육아종합지원센터 간 연계사업</li> <li>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li> <li>지자체 특수사업 등</li> </ul>

주: 사업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사업안내. p.376.

6)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사업안내. p.369.

터는 18개이며(경기도 2개 설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1개가 설치되어 있어 총 79개이다. 여기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하면 80개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구(시·군·구) 수 대비 100% 설치된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며 다음으로 설치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 세종, 인천, 울산, 제주 순이다. 읍면 지

역이 많은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은 설치비율이 한 자릿수로 집계되어 지역규모별로 설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이상 광역시), 충북, 전남, 제주(이상 시도)이다.

한편, 2014년부터 시간제보육(시간차등형보육)으로 명칭을 변경한 일시보육 서비스는 어린

〈표 2〉 시도 및 시·군·구 수 대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2015년 9월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시·도 및 자치구 수			센터 설치 현황			비율(B/A)
	시·도	시·군·구	소계(A)	시·도	시·군·구	소계(B)	
합계	17	230	247	18	61	79	32.5
서울	1	25	26	1	25	26	100.0
부산	1	16	17	1	3	4	23.5
대구	1	8	9	1	0	1	11.1
인천	1	10	11	1	5	6	54.5
광주	1	5	6	1	0	1	16.7
대전	1	5	6	1	0	1	16.7
울산	1	5	6	1	1	2	33.3
세종	1	1	2	1	0	1	50.0
경기	1	31	32	2	21	23	71.9
강원	1	18	19	1	1	2	10.5
충북	1	12	13	1	0	1	7.7
충남	1	15	16	1	1	2	12.5
전북	1	14	15	1	1	2	13.3
전남	1	22	23	1	0	1	4.3
경북	1	23	24	1	1	2	8.3
경남	1	18	19	1	2	3	15.8
제주	1	2	3	1	0	1	33.3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central/d1\\_10000/d1\\_10007.jsp](http://central.childcare.go.kr/central/d1_10000/d1_10007.jsp), 검색일: 2015년 9월 8일)

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영아(6개월~36개월 미만)<sup>7)</sup>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및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설이며<sup>8)</sup> 관리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이다.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이 일정기준의 보육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비상재해대피시설, 소방시설, 보험가입, 평가인증 통과 등의<sup>9)</sup>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간제보육서비스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실시되므로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국 시·군·구 지역마다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며, 그마저도 시·군·구 단위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읍·면·동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란 역부족이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두 기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두 기관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하겠다.

##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 1) 목적 및 사업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법적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동령의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이다.

설립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이다.<sup>10)</sup>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설치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구청, 동사무소, 지자체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 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sup>11)</sup>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①가족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정착, ②다양한 가족지원 및 이용자 참여 확대를 통한 가족기능 지원 강화, ③사업의 인지도 및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 브랜드화 등이다. 이와 더불어 추진 사업으로는 ①가족돌봄나눔 영역, ②가족교육 영역, ③가족상담 영역, ④가족문화 영역, ⑤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영역, ⑥지역사회 연계 등 총 6개 영역별로 되어 있다.<sup>12)</sup> 첫 번째 영역인 ‘가족돌봄나눔 영역’의 경우는 3가지 사업(모두가족 봉사단, 모두가족 품앗이,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일프로그램) 중 2가지 사업을 선택하여 공통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sup>13)</sup>

7) 유아(36개월 이상~만 5세)의 경우, 시범운영 중임.

8)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사업안내. pp.251~252.

9)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사업안내. p.252.

10) 여성가족부(2014). 2014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안내. p.5.

11) 여성가족부(2014). 같은 책. p.15.

12) 여성가족부(2014). 같은 책. p.30~32.

〈표 3〉 2014년도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통사업

구분	공통사업	설명
가족돌봄 니눔	모두가족 봉사단	• 기존의 가족봉사단의 활동 내용을 '돌봄'을 주제로 전환하여 운영
	모두가족 품앗이	•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가 함께 운영하는 품앗이, 남성이 참여하는 품앗이 등 다양한 그룹 운영
	* 3가지 사업 중 2가지 선택	•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 프로그램 • 토요일 2시간, 연간 24시간 이상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 예비/신혼기 부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남성대상 교육	•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남성대상 자기 돌봄 교육 등 • 연간 20시간 이상
가족상담	가족(집단) 상담	•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사업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접근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을 포함 • 가족단위의 면접 상담 유도 • 연간 상담 실적 100명 이하인 센터는 가족집단 상담을 연간 2건 이상 반드시 포함
가족문화	가족 사랑의 날	• 월1회, 수요일, 연간 20시간 이상 (※ 참가자 상황 등 고려 요일변경 가능)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다양한 가족사업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지원, 관계향상교육, 놀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실시 • 2인 이상 가족 대상, 10시간 이상 프로그램 실시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협업체 참여, 협약 및 연계사업	• 지역사회 협업체, 유관 기관 네트워크 활용 및 참여 • 유관기관 사업 협약 5건 이상

자료: 여성가족부(2014). 2014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33.

## 2) 설치 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 3개소(용산, 여수, 김해)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현재 전국의 154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중이다. 전국의 154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분포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모두 1개씩 설치된 것과 달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7개만 설치되어 있고, 시군구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과 경기는 설치율이 100% 이상으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16.7%이다. 시군구 중심으로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율이 낮은 읍면지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율이 높아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유치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13) 여성가족부(2014). 같은 책. p.30.

〈표 4〉 시·도 및 시·군·구 수 대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현황(2014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시·도 및 자치구 수			센터 설치 현황			비율(B/A)
	시·도	시·군·구	소계(A)	시·도	시·군·구	소계(B)	
합계	17	230	247	7	147	154	62.3
서울	1	25	26	1	26	27	100+
부산	1	16	17	1	8	9	52.9
대구	1	8	9	0	7	7	77.8
인천	1	10	11	0	9	9	81.8
광주	1	5	6	0	5	5	83.3
대전	1	5	6	1	0	1	16.7
울산	1	5	6	1	1	2	33.3
세종	1	1	2	1	0	1	50.0
경기	1	31	32	1	32	33	100+
강원	1	18	19	0	7	7	36.8
충북	1	12	13	0	4	4	30.8
충남	1	15	16	0	10	10	62.5
전북	1	14	15	0	6	6	40.0
전남	1	22	23	0	9	9	39.1
경북	1	23	24	0	9	9	37.5
경남	1	18	19	1	12	13	68.4
제주	1	2	3	0	2	2	66.7

자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familynet.or.kr/introduce/status/list.do>) 검색일: 2014년 12월 8일

### 3. 국외 사례: 일본의 지역자녀 양육지원센터(地域子育て支援センター)

#### 가. 추진배경

일본은 저출산(소자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994년부터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차세대육성

지원정책, 아동양육응원플랜 등의 일련의 정책들이 추진되었고,<sup>14)</sup>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개인과 가정 중심의 개별단위 중심의 지역사회중심의 육아정책으로 변화를 거쳐 왔다. 원래 지역사회 내의 부모들의 자발적인 육아지원 활동이 2005년 ‘아동양육응원플랜(子ども養育応援プラン)’으로 정책적으로 지원되면서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하였다.<sup>15)</sup> 본래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

14) 이하정(2010). 일본의 지역중심 자녀양육지원 체제의 특성: 지역양육지원거점사회(만남의 광장)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0(1), 한국유아교육학회, p.376.

사업은 1989년 ‘보육소지역활동사업’에서 시작하여 1994년에 ‘보육소지역자녀양육지원모델사업’, 1995년에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sup>16)</sup>

2005년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지역양육센터 사업에 대한 내용과 10개의 사업내용이 구체화 되었으며, 2007년에는 ‘만남의 광장사업’과 ‘지역양육지원센터사업’이 합쳐져 ‘지역양육지원거점사업’으로 일원화되었고, 2009년에는 제2종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되면서 보육소와 동등한 위치를 가지게 되면서 보육소의 부차적인 사업에서 지역 중심의 육아지원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다.<sup>17)</sup>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는 실시형태와 기능에 따라 센터형, 광장형, 아동관형으로 구분된다. 센터형은 독립된 공간에서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면, 광장형은 공공시설 중 유휴시설 공간을 활용해서 부모와 영유아 자녀에게 놀이, 휴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본 연구진은 일본 자녀양육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알아보려고 2014년 9월 16일~19일동안 동경 부근에 있는 ‘후지미노시 우에노다지역의 자녀양육지원센터(上野台地域子育て支援センター, 이하 우에노다이센터)’와 ‘후레아이히로바 자녀양육지원센터(이하, 히로바센터)’를 방문하였다. 전자는 센터형이고 후자는 광장형에 속한다.<sup>18)</sup>

## 나. 사례: 후지미노시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

후지미노시(ふじみ野市)는 9개의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의<표 5>는 후지미노시의 자녀양육지원센터 사업의 목적이다.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는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육아공동체를 지향하며 지역주민의 육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과 기능이 매우 유사하다.

<표 5> 후지미노시 자녀양육지원센터 설립 목적

이념: 육아와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양육하는 지역사회 구축

1. 자녀의 ‘생명’과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는 의욕과 힘을 보장하는 인권’을 지킨다.
2. 또래 부모들과 연계한 ‘육아·부모됨’과 육아의 가치를 공유한다.
3. 지역 내 육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써 양육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자료: 上野台地域子育て支援センター 霞ヶ丘地域子育て支援センター(2013). 平成25年度 ふじみ野市立地域子育て支援センター事業概要. p.1.

### 1) 우에노다이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

#### 가) 센터형

우에노다이센터는 2006년에 지역사회 내의 부모와 자녀의 육아를 위한 장소제공 및 교류를 목적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양육에

15) 이하정(2010), 같은 글, p.379.

16) 최영신·김만호(2006), 일본 「자녀양육지원센터」의 복지·보건연계에 대한 일고찰, 사회복지정책, 27, p.33.

17) 이하정(2010), 같은 글, p.377.

18) 아동관형은 주로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이라 본 연구에서는 제외함.





[그림 1] 우에노다이센터(건물좌측)



[그림 2] 우에노다이센터 옥외게시판의 월별일정표

눈을 뜨는 장(場)”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후지미노시에서 직영하는 우에노다이센터는 우에노다이보육소와 같은 건물에 있다. 동일한 건물의 좌우에 센터와 보육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음 [그림 1]에서 건물 왼쪽이 우에노다이센터이다. 사진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우측에 우에노다이 보육소가 있어서 중간의 복도를 매개로 두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시에서 예산을 각각 책정하고, 센터장과 보육소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운영은 독립되어 있다.

건물의 옥외 게시판에 월별 일정표를 붙여놓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지나가면서 그 달에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하는지를 쉽게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일본의 보육소는 보육이 필요한 가정만 이용 가능하므로 주로 맞벌이 가정이 이용한다. 반면,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의 서비스 대상은 외벌이 가구나 육아휴직 중인 부모 등 가정에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주요 고객이다. 실제 센터를 이용하려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방문해야 하고, 프로그램도 주로 평일 오전에 실시하고 있었다.

자녀양육지원센터와 보육소가 나란히 같이 있어서 지역주민이면 맞벌이 가정 또는 외벌이 가정에 상관없이 여건에 맞는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옥외게시판에 월별 프로그램을 부착하여 주민이면 누구나 오가면서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예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사전예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언제든지 방문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에노다이센터장과의 면담에서 일본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 방식보다는 이러한 오프라인 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전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 컴퓨터를 사용하면 가정 내에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이웃과 함께 육아에 참여하려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나) 프로그램

우에노다이센터는 약 2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에

〈표 6〉 우에노다이 자녀양육지원센터의 지역전문가 연계 강좌

강좌명	내용		
육아 강좌	•실시현황		
	연령	일정	수강자수
	0세	4/24, 7/24	어른 27명, 아이 27명
	1세	9/11, 1/10	어른 25명, 아이 25명
	2세	8/1	어른 10명, 아이 11명
3, 4세	2/19	어른 5명, 아이 6명	
•시간: 오전 9시 50분 ~ 11시 40분			
•강사: 후노사토어린이집 주임보육사, 보육소보건사, 육아지원 센터 직원			
음식 강좌	•실시현황		
	연령	일정	수강자수
	0세	5/23, 3/12	어른 17명, 아이 16명
	1세 이상	6/27	어른 15명, 아이 17명
•시간: 오전 9시 50분 ~ 11시 40분			
•강사: 후지미노시육아지원과 관리영양사			
그림책 강좌	•실시현황		
	연령	일정	수강자수
	0, 1세	11/20	어른 13명, 아이 13명
	2세 이상	12/4	어른 8명, 아이 13명
•시간: 오전 9시 50분 ~ 11시 40분			
•강사: 카미후쿠오카도서관 직원			
구급법 강좌	•실시현황		
	일정	수강자수	
	10/24	어른 15명, 아이 14명	
•시간: 오전 9시 50분 ~ 11시 40분			
•강사: 후지미노시 적십자봉사단 4명			

자료: 上野台地域子育て支援センター 霞ヶ丘地域子育て支援センター(2013). 平成25年度 ふじみ野市立地域子育てセンター事業概要, pp.4-6 재구성.

따라 부모모임의 종류도 육아교류의 ‘동아리(ひだまり)’, 사전예약 없이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별 자유이용’, 다자녀 육아모임인 ‘민들레회’, 외국인 부모모임인 ‘벚꽃회’, 쌍둥이 육아모임인 ‘네네회’, 다운중후군자녀 육아모임인 ‘햇님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었다. 인근 보육소의 보육사 또는 보건사가 진행하는 육아강좌, 후지미노시 육아

지원과 소속 관리영양사의 음식강좌, 인근 도서관 사서의 그림책 강좌, 후미지노시 적십자봉사단의 구급법 강좌 등이 그 예들이다. 이러한 강좌는 자녀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실시하고 있었는데 육아강좌는 각 연령별로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음식강좌도 0세와 1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교류 사업으로 보육소와 공동개최하는 ‘워킹맘, 워킹파파

모임', 자율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동료만들기 프로그램인 '봉오리교실', 기존모임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모임 교류회', 전화 및 면접 등의 각종 육아상담 및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방문형 육아지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모와 아이를 위한 '개별지원', 초등학생 대상의 '찾아가는 육아살롱' 등의 강좌는 자녀양육지원센터의 직원을 파견하여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있는 후지미노시 서비스센터 1층에 설치되어 있다. 시 소유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으며, 비영리 활동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소장과 보육사 6명이 상근하며 외국인 부모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판 브로셔를 제작해 비치하고 있었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유아 자녀가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 2) 후레아이 히로바 자녀양육지원센터<sup>19)</sup>

### 나) 프로그램

#### 가) 광장형

후레아이 히로바 자녀양육지원센터에서는 육아상담 프로그램, 일시보육, 재활용품을 활용한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시보육은 생후 6개월 이상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후지미노시 시민이면 1회 5시간, 월 50시간까지 자

후레아이 히로바는 '마음이 서로 통한다(후레아이, 触合い)'의 의미이다. 후레아이 히로바 자녀양육지원센터는 카미후쿠오카 지하철역 내에

〈표 7〉 후레아이 히로바 자녀양육지원센터의 일시보육 사업

구분	내용
대상	- 후지미노시 시민으로 생후 6개월 이상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
이용요금	- 평일: 2시간까지 1시간 600엔, 3시간부터 1시간 500엔 - 토, 일, 공휴일 18시 이후: 1시간 600엔
이용시간 횟수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 1회 5시간까지 한 달에 50시간까지
정원	- 1시간당 10명(0세 3명, 1세 이상 7명)
신청예약	- 사전 예약 등록(이용 이틀 전까지 히로바 창구에서 예약) *이용등록이 완료된 사람은 전화 예약 가능
비고	- 식사, 우유, 간식, 기저귀, 물티슈, 여벌옷, 수건, 쓰레기 봉지, 작은 연락장 등은 각자 준비함. 쓰레기를 가지고 감. - 상해보험가입

자료: 후레아이 히로바 자녀양육지원센터 한국어판 브로셔

19) 해당 내용은 후레아이 히로바 자녀양육지원센터의 한국어판 브로셔 내용임.

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간당으로 계산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는 우리나라 시간제보육서비스와는 다르게 토, 일,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먹을 식사, 간식, 기저귀, 물티슈 등은 개별로 준비해야 한다.

#### 4.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과 사업내용, 지역별 설치 분포를 살펴보고, 두 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일본의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를 사례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양육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원칙적으로 연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으므로 두 기관의 연계는 쉽게 그리고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시간제보육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 보육을 위한 공간으로 어린이집을 제공할 수도 있고, 시간제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을 관리해야 하므로 두 기관의 연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유치원과의 네트워크도 모색되어야 하겠다. 유치원은 시·군·구 단위의 지원센터가 없으므로 같은 시·군·구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사회의 육아수요에 부응할 것을 제안한다. 본 과제

에서<sup>20)</sup> 수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모른다고 응답한 영유아 부모들이 각각 33.5%, 49.6%로 높게 나왔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영유아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관 수 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많고, 시·군·구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낮은 인지도는 제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네트워크를 맺는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재원아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센터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무부처가 다른 센터와 기관을(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교육부의 유치원)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요자(부모)를 위해 센터와 기관은 인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규로 설치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근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하원시키면서,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센터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최대한 가까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 센터 이용 시 불편했던 점으로 '집에서 멀어서' '교통이 불편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sup>21)</sup> 센터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가까이 설치된다면 이러한 불만사항은 해소될 수 있다.

20) 각주 1 연구보고서의 연구결과임.

21) 각주 1 연구보고서의 연구결과임.

셋째, 신규 센터는 규모는 작더라도 기능을 분화하여 읍면동에 설치한다. 가정 양육지원 서비스는 지역밀착형으로 제공되어야 수요자의 만족도와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린이집 지원 기능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정양육 지원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해서 전자는 시군구에 설치하고, 후자는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이다. 실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로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꼽을 수 있는데, 강남구 내 5개 동(洞)에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정 양육지원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다.

넷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육아 관련된 인적·물적 인프라와 지속적으로 연계

하여 네트워크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는 인근의 보육소, 영양관리 담당 공무원, 도서관 사서, 적십자봉사단 등의 단체들과 네트워크하여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공통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부모들의 인지도가 현저히 낮아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아직 미비한 단계이다. 이들 센터들이 지역 내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야 하며, 그 시작은 근방의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제휴에서 출발되어야 하겠다.